



소개

이미지 텔러

후세인 알무사위(HUSSAIN ALMOOSAWI)와 모나 알그와이즈(MONA ALGWAIZ)

예거 르쿨트르 MADE OF MAKERS™ 프로그램을 통해
사진을 재해석하는 새로운 예술 협업

주요 특징:

- **새롭게 거듭나는 제 8 의 예술:** 이미지를 촬영하는 것만큼이나 쉽게 생성할 수 있는 시대에 사진의 미래 예측
- **시간을 초월한 대화:** 기억과 기원에 바탕을 둔 후세인 알무사위의 사진, 그리고 가상의 미래에 유산을 투영하는 모나 알그와이즈의 AI 디지털 작업
- **‘시간을 잇는 다리(Bridge in Time):’** 유서 깊은 아랍의 건축에서 영감을 받아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몰입도 높은 다섯 가지 작품

2026 년, 사진은 탄생 200 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AI 시대에 접어든 지금, 이미지 제작은 그 어느 때보다 커다란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사진작가 후세인 알무사위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인공지능 디지털 아티스트 모나 알그와이즈는 예거 르쿨트르의 Made of Makers™ 프로그램에 창의적인 재능을 불어넣습니다. 두 아티스트가 제작한 시리즈에서 후세인 알무사위는 건축, 장식, 거리 풍경 등 중동의 전통 디자인 요소들을 사진으로 담았고, 모나 알그와이즈는 디지털 작업을 통해 가상의 미래 환경에 후세인의 사진을 투영합니다.



고전 예술의 경계 확장

Made of Makers™ 프로그램은 위치메이킹과 예술 분야의 공통점을 찾아, 메종의 핵심 가치인 창의성, 전문성, 정확성을 공유하는 위치메이킹 분야 이외의 아티스트, 디자이너, 장인들과 협업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고전 예술이 정체되어 있거나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통념을 깨고, 끊임없는 재탄생을 통해 오늘날 창의성의 주요한 원천으로 존중받도록 합니다. 과거에는 혁신적이었던 시도가 현재의 고전이 되는 것처럼, Made of Makers™ 프로그램은 전통적인 형태와 기법이 새로운 소재와 매체를 통해 어떻게 재창조될 수 있는지를 탐구하며, 과거와 현재 사이의 색다른 관점을 선사합니다. 그랑 메종의 위치메이커와 마찬가지로, 아티스트들은 전통을 창의성의 토대로 삼으면서도 끊임없이 한계를 넘어 새로운 영역을 개척합니다. 이를 통해 위치메이킹과 고전 예술 모두 인간의 창의성을 드러내고, 시대의 문화를 반영하며,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현재 Made of Makers™ 커뮤니티는 현대 시각 예술 및 미식, 음악, 향수 분야를 아우르고 있으며, 디지털 미디어 아티스트 강이연(한국)을 포함, 아티스트 지문(스위스)과 마이클 머피(미국), 기욤 마망(프랑스), 레터링 아티스트 알렉스 트로슈(스페인/미국), 페이스트리 셰프 니나 메타예(프랑스), 믹솔로지스트 마티아스 지루(프랑스), 뮤지션 토키오 마이어스(영국), 멀티 미디어 아티스트 브랜디 웨딩거(미국), 셰프 히만슈 사이니(인도), 스트리트 라이트 페인팅 아티스트 로이 왕(중국), 건축가 압달라 알물라(아랍에미리트), 조향사 니콜라 본빌(프랑스), 디자이너 칼리드 샤페르(아랍에미리트), 쇼콜라티에 마티유 다브완(프랑스/스위스), 애니메이션 영화감독 재키 왕(중국), 웹툰 작가 올리브코트(필리핀)와의 협업을 선보였습니다. 후세인 알무사위 그리고 모나 알그와이즈(아랍에미리트)와 진행한 새로운 협업은 사진을 재해석한 작품을 Made of Makers™ 포트폴리오에 추가합니다.



사진에서 몰입도 높은 시각화까지

이번 프로젝트는 사진에서 출발합니다. 사진은 실제 장소, 건축 형태, 삶의 공간을 담는 관찰의 매개체로써 기억을 현재로 불러옵니다. 그리고 현실의 가시적인 파편으로부터 창작의 두 번째 막이옵니다.

이미지는 AI 디지털 작업을 통해 변형되거나 대체되지 않고 폭넓게 확장됩니다. 단순히 눈으로 바라보기만 하는 표면이 아닌, 그 안으로 들어가 몰입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합니다. 건축은 물리적 한계에서 벗어나 점차 확장되고, 시간은 포개어지며, 익숙한 형태는 가상의 미래로 투영됩니다.

이 과정에서 아티스트들이 몰입형 시각화라고 설명하는 접근법, 즉 사진은 기록을 넘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축되는 복합적인 시각적 경험으로 확장됩니다. 미래는 과거를 지우지 않고 과거로부터 성장합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는 하나의 시각적 연속체 안에서 공존하며, 유산을 정지된 형태로 보존하는 대신 끊임없이 새롭게 재해석하는 메종의 위치메이킹 철학을 고스란히 반영합니다.

이미지 텔러

아랍에미리트의 멀티 아티스트이자 크리에이터인 후세인 알무사위는 디자인, 사진, 시각 저널리즘 분야에서 20년 넘게 활동해 왔습니다. 그는 폭넓은 활동을 펼치며 새로운 시선에서 아랍에미리트를 둘러싼 도시 풍경을 바라보려는 탐구 활동에 몰두하는 한편, 쉽게 간과되기도 하는 현대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기록해 오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출신의 엔지니어이자 디지털 아티스트인 모나 알그와이즈는 인공지능과 문화 유산, 미래 디자인의 교차점을 탐구합니다. 이 과정을 거쳐 그녀는 익숙한 풍경과 건축, 사람들이 공유해 온 기억을 새롭게 그리고 미래적인 이미지로 재창조합니다. 기술, 디자인, 문화 스토리텔링이 교차하는 접점에서 작업을 발전시켜 사우디아라비아의 인공 및 자연 환경을 새로운 미래로 재구성합니다.



‘시간을 잇는 다리(BRIDGE IN TIME)’: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다섯 개의 복합 이미지

‘시간을 잇는 다리’에서 후세인 알무사위와 모나 알그와이즈는 과거와 미래가 하나로 이어지는 몰입도 높은 작품을 통해 제 8의 예술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합니다. 아카이브 모티프와 상상 속 도시 풍경이 만나, 그들의 작업은 문화 유산을 보존하면서도 인공지능 같은 혁신을 수용하는 지속성과 변혁 사이의 대화를 이끌어냅니다. 이는 형태, 소재, 기법을 끊임없이 재창조하면서도 2 세기에 걸쳐 구축한 정체성을 보호하려는 메종의 사명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그 결과, 과거와 미래가 하나의 시각적 평면 안에 공존하는 복합 이미지가 탄생했습니다.

마당(밥 알 샴스): 공동체 생활의 중심이 되는 환대와 모임의 공간

문턱(엑스포 포털): 의도를 드러내고 성찰 단계로 나아가는 전환의 순간

다리(인피니티 브릿지): 세대 간 연결과 전승의 상징

산호 벽: 오래전부터 아랍에미리트 해안 건축에 사용된 산호석에 뿌리를 두고 기억과 회복력, 재생을 구현하는 살아있는 건축 형태로 재해석되어 바다와 육지를 연결

모스크(빛의 모스크): 영성과 통합을 통해 시간을 붙잡는 방향성과 리듬의 공간

두바이의 공공 조형물

‘시간을 잇는 다리’는 두바이 현지 분위기와 문화적 에너지가 넘치는 활기찬 야외 명소인 나드 알 셰바 광장(Nad Al Sheba Square)에 공공 조형물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특별한 여정으로 안내하는 이 조형물은 후세인 알무사위와 모나 알그와이즈가 제작한 다섯 가지 작품과 메종에서 선정한 리베르소 타임피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 월 3 일부터 이드 알피트르(Eid Al-Fitr)까지, 매일 이프타르(Iftar) 이후 관람 가능합니다.

후세인 알 무사위

아랍에미리트의 멀티 아티스트이자 크리에이터인 후세인 알무사위는 디자인, 사진, 시각 저널리즘 분야에서 20 년 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2007 년, 퀸즐랜드 예술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받은 후 레터 D(The Letter D) 및 브리즈번 박물관(Museum of Brisbane)에서 근무하며 디자인 경력을 쌓아 나갔습니다. 이후 멜버른의 스윈번 대학교에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이곳에서 도시의 다양한 타이포그래피 유형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2013 년 아랍에미리트로 돌아와 더 내셔널(The National) 및 아부다비 미디어(Abu Dhabi Media) 산하의 다른 미디어 플랫폼에서 인포그래픽 아티스트 겸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활동했습니다. 새로운 시선으로 아랍에미리트를 둘러싼 도시 풍경을 바라보는 탐구 활동에 몰두하는 한편, 쉽게 간과되기도 하는 현대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기록해 오고 있습니다.

모나 알그와이즈

사우디아라비아 출신의 엔지니어이자 디지털 아티스트인 모나 알그와이즈는 인공지능과 문화 유산, 사변적 디자인의 접점을 탐구합니다. 정밀한 탐구 과정을 거쳐 풍경과 건축 형태, 집단 기억을 재구성하고 익숙한 환경을 미래지향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유산을 정적인 참조점이 아닌 미래를 상상하게 하는 살아 있는 기준으로 바라보며, AI 를 활용해 전통과 미래지향적 미학을 결합한 몰입도 높은 디지털 작품을 선보입니다. 가상의 사막 건축물에 상상 속 문화 공간까지, 앞선 시각을 담은 다양한 프로젝트로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기술, 디자인, 문화 스토리텔링이 교차하는 접점에서 작업을 발전시켜 사우디아라비아의 인공 및 자연 환경을 새로운 미래의 풍경으로 재구성합니다.

MADE OF MAKERS™ 소개

Made of Makers™ 프로그램은 위치메이킹 이외 다양한 분야의 아티스트, 디자이너 및 장인 커뮤니티를 한자리에 모읍니다. 위치메이킹과 예술 사이에 존재하는 교류를 확장하는 이 프로그램은 항상 예거 르쿨트르를 정의하는 핵심 원칙인 창의성, 전문성, 정밀성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랑 메종의 가치를 공유하며 예상을 뛰어넘는 다양한 소재와 매체를 통해 새로운 표현 형태를 탐구하는 세계적인 크리에이터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매년 프로그램을 통해 의뢰되는 새로운 작품들은 예거 르쿨트르가 전 세계에서 개최하는 전시에 활기를 불어넣고 선정된 주제를 확대함으로써, 관객이 직접 참여하고 예술, 공예, 디자인에 대한 더욱 풍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거 르쿨트르 소개 – 워치메이커의 워치메이커

1833년부터 혁신과 창의성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과 발레르주의 평화로운 자연 환경에서 영감을 받은 예거 르쿨트르는 컴플리케이션에 대한 전문성과 메커니즘의 정확성으로 독보적인 워치메이커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워치메이커의 워치메이커 TM 로 알려진 매뉴팩처는 1,400 개 이상의 다양한 칼리버 제작을 통해 독창적인 정신을 끊임없이 표현해 왔으며 430 여 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랑 메종의 워치메이커는 190 년 이상 축적된 전문 지식과 열정을 바탕으로 정밀한 최첨단 메커니즘을 디자인, 제작, 마감, 장식하며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고 언제나 시간의 흐름과 함께합니다. 180 여 개의 기술력이 한 지붕 아래 모인 매뉴팩처에서 기술적 독창성과 미적 아름다움, 절제된 세련미가 결합된 파인 워치메이킹 작품들이 탄생합니다.

jaeger-lecoultre.com